2020년 9월호 (제363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 촌 선 조 정 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 서 가 이 열 친 심

勉爾孜孜 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 이 자 자 석 촌 음

老矣無能 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 의 무 능 도 자 회

頭邊歲月 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 변 세 월 고 침 침

遺子滿籯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 자 만 영 금

不如敎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 여 교 일 경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 언 수 담 박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 이 고 정 녕

특별기고

나의 책을 말하다.

-일본열도기행 '메이지유신 격동의 현장에서' -

중년 이상의 한국인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부정과 긍정의 이미지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근대의 일본 침략과 식민지배의 잔혹함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도, 폐허에서 재기하여 일류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탄과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무지(無知)가 존재한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라고 일본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19세기 후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진 제국으로 탄생하며 강대국의 반열로 들어섰을까? 조선과 일본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단순히,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메이지유신이라는 체제변혁에 성공한 탓일까?

일본민족과 국토 일본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직접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을까? 불 같은 욕구가 나를 일본 열도의 현장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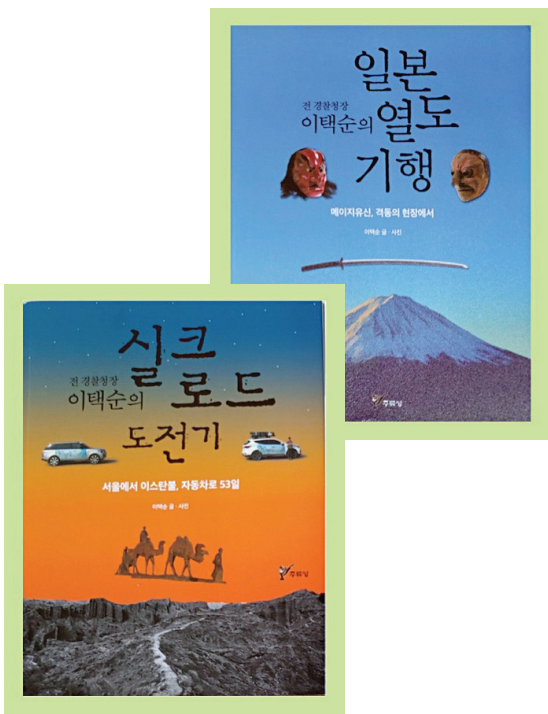
일본이란 나라는 상상 이상으로 광대했다.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서 도쿄까지 1500Km, 홋카이도 북쪽까지는 2800km의 거리이다. 오키나와와 태평양의 섬을 포함하면 광활한 영토이다. 영해(領海)로만 따지면 중국의 3배에 달한다. 인구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은 일본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진 태평양에 노출된 열도(列島)라는 지리적 여건도, 독립과 자존에 매우 유리하였다. 일본인들은 반복되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의 자연재난을 극복하려는 무서운 투혼(鬪魂)과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순응(順應)이 있었다. 토속신앙 신도(神道)와 불교(佛敎)가 그 들의 애환을 수용하고 있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잇쇼겐메이(一生懸命)'로 대표되는 충성(忠誠)과 장인(匠人) 정신은 근대 제국주의와 산업사회의 토대가 된다. 철저히 칼이 지배하는 사회이면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메이와쿠(迷惑)정신은 정확히 보전되어, 질서와 신용의 사회를 건설하는 덕목이 된다. 여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이룩한 근세 250년의 평화는,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는 풍요로웠다. 일본은 17~18세기 산업혁명기를 허송하지 않았다. 외침으로 무너져 내리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19세기 초부터 고뇌하던 일본의 지도층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견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사쓰마 조슈 지방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꿈을 가지고 국가 변혁의 대열에 앞장서게 된다. 무사들은 천황(天皇)을 상징으로 앞세워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창한다. 영토 욕심이 없는 미국과 개방을 시작한 것도 큰 행운이었다. 격렬한 내부 투쟁은 하급무사 세력과 천황파의 합작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했다. 수많은 인재를 구미 각국에 파견하여, 서양 문물의 도입에 주력했다. 효율적 국가체제와 헌신적 관료로 변신한 사무라이가, 30여 년 매진한 산업화와 근대화는 결실을 얻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일본 근대화의 시동은 150년 전 메이지유신에서 촉발되었지만, 그 뿌리는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 있었다. 영토를 확장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식민제국, 반면 그 들은 유럽을 흉내 내며, 허약한 아시아인에게는 또 하나의 강대국 행세를 하였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를 답습한 그들은 한반도 식민지화, 중국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에서 보인 극렬한 야만성으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버금가는 상처를 만들었다. 이것은 현대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이며 한일관계에 커다란 암초가 된다.

이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신생 대한민국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조기에 달성하며, 10대 경제 강국(G-10) 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근대화도 빨랐고, 현재에도 경제 기술 교육강국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 유럽에서 배우듯이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열정적으로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 가까이 두고 멀리 돌아감은 우둔한 것이다.

일본을 철저히 경계하며, 바르게 알고 배워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이슈 시시비비는 가리되, 정경분리의 원칙아래 대타협(大妥協)을 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일본의 재침을 막는 길이다.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의 식견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일본 근대화의 역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얻은 결론이다.

우리 광주이씨 문중은 조선의 어떤 문중보다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지식과 학문을 중시하는 문중이다. 이 책이 강호의 친인척들과 후손들에게 일본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다.

–광이 21대손(좌의정공파)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지파종회 소식

충희공종회

■ 충희공 종회 오군 도유사 간담회 개최

충희공 종회(도유사 대행 종성)에서는 2020년 8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충희공종회 사무실에서 종성 도유사 대행을 비롯한 오군(五君) 지파 도유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승재 총무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도유사 인사. 경과보고 기타 순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도유사 대행 선임에 관한 보고와 종회 조직 및 서류 변경사항에 관한 보고, 충희공 선조님 추모제에 관한 보고, 제실 정비에 관한 보고, 청송 영재 선생 공적비 설치에 관한 보고 등이 있었다. 종성 도유사 대행은 인사에서 지난 7월 7일 병대 도유사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하여 충희공 종회 규약 11조 2항에 의거 도유사 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긴 장마와 휴가철로 인하여 오군 도유사 간담회가 늦었다며 앞으로 종사 운영에 있어 좋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뵙겠다며 인사에 가름하였다.

■ 2020년 K-museums 공동기획전 여주박물관에서 개최

-충희공(諱 仁孫)선조님 묘소 천장과 영릉-

국립민속박물관과 여주박물관은 "2020년 K-museums" 공동기획전을 오는 9월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여주 영릉을 품다"라는 주제로 여주박물관에서 개최한다.

K-museums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은 지난 2012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박물관과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특별전을 개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 문화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박물관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희공 종회(도유사 대행 종성)에서는 주최측으로 부터 충희공(諱 仁孫) 선조님 묘소 천장과 영릉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지난 8월 20일(목요일) 여주 충희공 묘소에서 천장과 관련한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는 당초 충희공 선조님 묘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무덥고 습한 날씨 관계로 재실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날 인터뷰한 내용과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오는 9월 28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여주박물관에서 전시 방영될 예정이다.

전시 장소는 여주박물관 황마관 2층 전시실이며,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12이다.

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관을 바란다.

– 충희공 종회 총무 승재 記 –

문경공파종회

■ 2020년 東皐相公(諱 浚慶) 불천위제 봉행

문경공파 동고종회(종회장 종한)는 광주이씨 3정승의 한분이신 충정공(忠正公) 동고상공의 歲序 448주기 불천위제를 8월 25일(음 7월 7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 충정사(忠正祠)에서 봉행하였다.

이날은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2단계 조치에 준해서 사전에 동고종회 집행부만 참여해서 간단히 불천위제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충희공 종성 도유사 대행, 광릉부원군 봉수 도유사 대행, 문경공 경래 도유사, 광천부원군 성호 도유사, 광원군 용식 도유사 대행, 좌의정공 근열 도유사, 그리고 5군 집행부 유사 등 지파내 종원들이 참석하였다.

제례에 앞서 동고종회 종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및 폭염으로 인하여 조선조 영의정을 지내시고, 유일하게 종묘(宗廟)에 배향되어 계신 동고상공의 불천위제가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됨을 내심 죄송스러워 마음이 불편하였는데, 이렇게 여러 도유사님들과 집행부 유사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대히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광주이씨 후손들의 조상님에 대한 숭조 정신에 동고상공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인사하였다.

이날 제례는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 두기를 실시한 가운데 초헌관에는 태희 동고종손, 아헌관에는 충희공 종성 도유사 대행, 종헌관에는 광원군 용식 도유사 대행께서 헌작을 하였으며, 축관에는 근배, 집사에는 종웅 · 승수 · 흥수 · 양수, 집례에는 문경공파 경수 총무유사가 맡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제례를 마친 후 충정사 사당 내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와 반주를 하면서 숭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이날 충희공종회, 숭덕재공종회, 현감공종회 경래 도유사, 양호당 화래 종원 등 향촉금을 봉헌해 주심과,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천위제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종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문경공파 동고종회 총무 종민 記–

목사공파종회

■ 종회 보학교육의 새로운 바람

목사공(諱 之柔)파종회 23대손 영균 현종이 종회 내 어린이들의 보학을 위한 교제로 『푸른 강변마을의 느티나무』라는 제목의 동화집을 출판하였다.

영균 종인은 목사공파 판돈령공계 20대손으로 오래전부터 집안의 보학 교육을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해오던 중 아이들이 읽기 좋은 동화로 집필하여 지난 6월 15일 출판하게 된 것이다.

영균 현종의 첫 동화집이기도 한 『푸른 강변마을의 느티나무』의 주된 내용은 문중과 한 집안의 변천사를 다룬 사실적인 이야기로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력은 물론 충 · 효 · 열 · 예 · 우정 등 삼강오륜의 예절 사상과 도덕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 한번 읽어 본 독자들은 깊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새로운 방식의 동화 이야기여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저자의 동화가 앞으로 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새로운 보학교육 방안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영균 현종은 이와 같은 책자를 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종회와 종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하겠다고 한다.

-노년(老年)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마무리-

지파도유사 글 좌통례공파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한 여름철 염증(炎蒸) 무더위도,『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處暑)를 지나자 계절의 엄연한 순행으로 여름 따라 가고 우리 곁으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 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하고 노래한 동요처럼 우리 곁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노이로제에 걸린 그 지긋지긋한 망할 놈의 코로나'19도 인간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서서히 물러나 종(終)을 치고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나는 날이 곧 오겠지.

요즘《소노 아야코 》의 [계노록(戒老錄-「노년에 경계해야 할 것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을 읽고 있는데 나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었다. 돌이켜 보니 나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노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그 반추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슨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흔히들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이다음 일이지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다. 늙은이 망령된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 순간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제대로 살고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불안 같은 것에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해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 지구의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것 같다. 오늘과 같은 두려운 기후 변화와 유행 돌림병은 지구환경을 허물고 인간 세상을 멍들게 하여 온 우리들 자신의 소행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인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될 수 있는 한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더미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살림살이를 시시로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손대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내게 소용없는 것들이니 아낌없이 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자란 집이나 물건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한밤중 잠께서 깨어나 별빛처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날그날 삶의 자취를 낱낱이 살피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비춰 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 노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에 있음을 잊지 말 일이다. 노년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전 단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다. 노년의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며 남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이다.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출 때 완성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릿바람에 저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 빈 가지에 때가 오면 또다시 새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2020년 잠못드는 어느날 가을밤에.

-좌통례공파 도유사 소산(所山) 택 수 書-

廣州이씨 구현문의 편액이 내려지다(賜書 九賢門額)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연산군 10년 갑자(1504) 8월 15일

「내가 일찍이 한가할 때에 열람해 보니, 《춘추(春秋)》의 경계를 보임이 이에 이르렀다. 지난번 이극균(李克均)과 이세좌(李世佐) 등의, 종족이 번성하여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장차 기세를 펴 만연하게 되면 오랜 뒤에 어찌 《춘추》에 말한 것처럼 되지 않을 줄을 알겠는가?. 이래서 이미 베어 없앴거니와, 만약 권간(權奸)이 이와같이 반거(盤據) 한다면 국가가 편할 수 있겠는가.」하고, 이어 12월 15일 전교하기를,

"이극균 · 이세좌 등의 시체를 일찍이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반드시 거두어 매장하였을 터이니, 지금 다시 파내어 해골을 분쇄하여 형적(形跡)을 없애는 것이 어떠할까?"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죄가 중한 사람이니 의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니, 또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간신의 해골을 바람에 날려 천지간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땅에는 영험스러운 풀이 있고 하늘에는 신통한 새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연산 10년 갑자(1504)에 연산(燕山)은 미친듯이 날뛰어, 폐비윤씨(廢妃尹氏)의 사사(賜死) 건을 구실로, 사화(士禍)를 일으키니, 이때 승지(承旨)로서 폐비에게 사약(賜藥)을 가지고 간,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에게 4월 4일 스스로 목을 매게하고, 4월 15일에는 계부(季父)인 좌의정공(左議政公 諱 克均)에게 사약(死藥)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뼈를 부수는 악형(惡刑)을 행하고, 5월 13일 광양군의 아들 4형제, 5월 16일 동생을 참형하였으며, 종제(從弟 諱 世匡)와 당질(堂姪 諱 守恭) 등 광주이씨 일문 9인이 참화(慘禍)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귀양을 가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 성종조(成宗朝) 팔극조정(八克朝廷)을 이끌던 광주이씨(廣州李氏)는, 연산 갑자년에 이르러 혼돈의 시대를 맞아, 가문이 쓰러지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된 것이다.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성인(聖人)은 세상의 동량(棟樑)이요. 육경(六經 易詩書春秋禮樂)은 성인(聖人)의 동량(棟樑)이다」 라고 하였다. 광주이씨 선조들께서는 오직 성인(聖人)과 육경(六經)의 글을 배우고, 올바른 도리(道理)를 행하는 기질(氣質)로서 국가의 동량(棟樑)이 되었는데, 연산조에 이르러 포악무도한 연산군과 임사홍(任士洪), 유순(柳洵), 유자광(柳子光) 등의 모사(謀事)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대하(大厦)가 기울어지려고 하니, 뒤집힌 짚더미 밑에는 아무것도 온전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찌 천도(天道)가 회복되어 일월(日月)이 다시 밝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행히 2년 후인 병인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임금인 중종(中宗)은 광양군을 비롯하여 형제, 아들, 조카 등 구현(九賢)이 죄 없이 참형을 당하였다 하여, 칭찬하는 글을 써서, 구현문(九賢門)의 편액(扁額 賜書九賢門額)을 내리고 일문 모두를 설원(雪冤)하여 주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까? 그러나 편액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에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슬픈 역사의 주인이 된 선조들을 되돌아보고 긍지와 교훈을 갖자는 의미에서 광주이씨 9현(九賢)을 알아 본다.

1. 좌의정공 극균(左議政公 諱 克均 1437 ~ 1504)

公의 자는 방형(邦衡)이고 호는 오봉(五峯)이며, 충희공(忠僖公 諱 仁孫)의 아들 5군(五君) 중 다섯 번째로 세종 정사년(丁巳 1437) 출생하여, 20세 되던 세조 2년(1455) 병자(丙子) 식년시(式年試)에 셋째 형님인 광천부원군(廣川府院君 諱 克增)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였다. 어려서부터 무술에도 뛰어나 세조의 총애를 받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459년 성균관 주부, 이어 회령 도사 · 지평 · 도체찰사의 종사관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김구(金龜) · 최항(崔恒) · 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교정손자주해"를 찬하였다. 세조 7년(1461)에는 함길도 체찰사(咸吉道 體察使)로 부임하는 한명회(韓明澮)에 의해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되고, 문관으로서 변방을 지키는 무관의 직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세종 때의 김종서 장군(金宗瑞 將軍) 이래 처음이었다. 세조 13년(1467)에는 만포(滿浦)지방의 토적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여 큰 공을 세우고, 만포절제사(滿浦節制使)에 임명 되었으며, 이후부터 변방을 지키는 덕장(德將)으로 명망을 떨쳤다. 예종 원년(1469)에 경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내고, 성종 3년(1472)에는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4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어 1479년 강원도 관찰사, 평안도 절도사, 한성부 판윤,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484년 대사헌, 1486년 형조 판서, 의금부 당상, 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성종 신해년(1491)에 변방에서 이룩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남군(廣南君)에 봉작(封爵)되었으며, 연산군 1년(1495) 다시 평안도 관찰사, 1498년 좌찬성, 이듬해 경변사(警邊使)를 지냈다. 1500년에 우의정이 되어 이듬해 좌의정 성준(成俊)과 함께 〈서북제번기(西北諸蕃記)와 〈서북지도(西北地圖)〉를 편찬하였으며, 1502년는 좌의정(左議政)에 승임(陞任)되었다.

이때부터 公은 연산군(燕山君)의 방탕한 생활을, 측근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신하로서, 점점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는데, 말년의 연산군(燕山君)이 얼마나 公을 증오하였던지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보면 왕은 미운사람을 "이극균(李克均)같이 간악한 놈"으로 몰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公은 연산군(燕山君)의 잘못된 행동을, 그 면전(面前)에서 자주 비판하였는데, 왕의 체통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물건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삼사(三司)의 관헌들에게 일일이 논계하도록 명하였고, 연산군에게는 민심이 멀어져가고 있음을 직언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10년 갑자(甲子 1504)에 임금이 주는 술잔을 엎질렀다 하여, 조카 광양군(諱 世佐)을 귀양 보내고, 그 일족을 치죄(治罪)할 때에, 公이 이를 말리려다가 같이 경상도 인동(仁同)으로 귀양길에 오르게 되어, 결국은 바로 사사(賜死, 실록에는 목을 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되고, 이어 쇄골지형(碎骨之形 뼈를 부수는 형벌)을 당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갑자년(1504) 12월 15일 "이극균 등 죄가 중한 자들의 해골을 파내어 분쇄하여 바람에 날리게 하라"]

公은 사약(賜藥)을 마시면서도 「나는 나라를 위하여 변방을 다니며 功을 세운일은 있으되, 사약(賜藥)을 받을만한 죄를 지은 일은 없으니, 금부도사[禁府都事,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는 이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 하거라.」고 호통을 치었다. 이 때가 공의 춘추 68세였다.

중종이 반정(中宗反正)후 의관장(부관참시를 당했으므로)으로 모셔다가 정승(政丞)의 예(禮)로 장례지내 드리도록 하였다. 후손들이 公의 의관과 함께 지금의 성남시 남야탑(城南市 南野塔)에 있던 셋째형님(諱 克增) 묘역근처에 안장(安葬)해 드렸는데, 1991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京畿道 南陽州市 眞乾面 龍井里)로 유택(幽宅)을 천봉(遷封)하였다. 광이 팔극 조정(廣李八克朝廷) 당시의 팔종형제(八從兄弟)분들 중 여섯 번째 집이며, 아들에 부사 세준(世俊)과 좌통례 세건(世健)이고 한음상공(漢陰相公 諱 德馨)이 公의 5대손이다.

2. 광양군 판중추부사 세좌(廣陽君 判中樞府事 諱 世佐 1445 ~ 1504)

公의 자는 국언(國彦)이고, 호가 한원(漢原)이니, 세종 을축년(1445) 6월 7일 한성 교동(漢城校洞)에서 문경공(文景公 諱 克堪)의 장자로 탄생하였다. 사가재 서거정(四佳齋 徐居正)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김굉필(金宏弼), 성혼(成渾), 정여창(鄭汝昌), 유호인(兪好仁) 등 제현들과 도의로 사귀었다. 세조 을유년(1465)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예종이 즉위한 뒤 판관을 지냈고, 성종 정유년(1477) 장악원 첨정으로, 식년문과 갑과(文科甲科)에 급제(及第)하여, 통정대부 대사간(通政大夫 大司諫)에 제수되었다. 무술년(1478)에 충청도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기해년(1479)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이 되었고, 정자년(1480)에 차례대로 육승지(六承旨)에 올랐으며, 성종 임인년(1482)에 폐비윤씨((廢妃尹氏) 사사(賜死)에 형방승지(刑房承旨)로 명(命)을 받아 현지에 다녀왔다.(이 일로 인하여 갑자사화에 화를 당하였다). 성종 계묘년(1483)에 도승지(都承旨)로서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올랐고, 곧이어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에 올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과 형조참판(刑曹參判)을, 10월에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임명되었으며, 병오년(1486) 정월 호조참판으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사신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외교수완이 능하여 명조(明朝)에서 극구 칭찬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기뻐하며 광양군(廣陽君)에 봉작(封爵)하고, 11월에 경상도 관찰사, 기유년(1489) 성균관 동지사(成均館 同知事) · 대사헌(大司憲) · 호조참판(戶曹參判) · 황해도 관찰사(黃海道 觀察使) 등을 역임하고, 성종 계축년(1493)에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品階)에 올라, 경기 감사(京畿監事)가 되고, 연산 을묘년(1495) 9월에 정헌대부 호조판서(正憲大夫 戶曹判書), 병진년(1496) 2월에 함경도 순변사(咸鏡道巡邊使), 6월에 숭정대부 병조판서(崇政大夫 兵曹判書)에 올랐다.

정사년(1497)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양관제학(兩館提學)을 제수받았으며, 무오년(1498)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으나, 7월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과 교분이 있다하여, 파면당하고 갑산(甲山)으로 귀양 갔다가, 8월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서용(敍用) 되었으며, 신유년(1501)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임(兼任)하였고, 같은 해 9월 15일에 3도 체찰사(三道體察使 충청 · 전라 · 경상)에 천임(遷任)되었다가, 임술년(1502)에 내직(內職)으로 돌아와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연산 9년(1503) 9월 11일 선정전 양로연(宣政殿 養老宴)에 참석하여, 연산군(燕山君)이 내리는 술잔을 어의(御衣)에 엎지른 실수[失手 손을 떠는 지병(風)이 있었는대 폐비윤씨에 대한 보복의 빌미가 되었다]로, 22일 온성(穩城)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 정월에 연산이 어서(御書)를 내려, 3월 3일에 특방(特放)되었으나, 대사헌 홍자하(大司憲 洪自河), 대사간 최린(崔隣) 등의 반대로 강원도 평해(平海)로, 다시 거제도(巨濟島)로 귀양 가던 도중, 연산이 자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경상도 곤양 양포역(慶尙道 昆陽 良浦驛)에서, 4월 4일 스스로 목매어 서거(逝去)하였다

2년 후인 병인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 죄가 없이 피살되었다 하여, 의정부 우의정(議政府 右議政)에 추증되었고, 임금이 칭찬하는 글을 써서, 구현(九賢)에게 내려준 구현문의 편액(扁額 賜書九賢門額)을 하사(下賜) 받았으며, 세사부조(世祀不祧, 불천위)로 모시도록 하였다. 묘(墓)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이며 표석과 유고가 있고 신도비를 세웠다. 슬하에 형제 4인이 김굉필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다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로써 이름났는데, 연산 무오사화에 멀리 귀양 갔다가, 갑자사화(甲子士禍)에 4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참형(斬刑)을 당하였다. 장자는 충청도사(忠淸都事) 수원(守元)이고, 차자는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수형(守亨)이며 3자는 검열(檢閱) 수의(守義)이고 4자는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

修撰) 수정(守貞)이다

3. 증 이조참판공 세걸 (贈 吏曹參判公 諱 世傑 1463 ~ 1504)

자는 수언(秀彦)이고 세조 계미년(1463) 문경공의 셋째 아들로 탄생하였다. 아버지(文景公)를 어려서 잃고(2세 때이다), 큰 형(長兄)인 광양군(廣陽君)에게 의탁하였다. 성종 기유년(1489)에 생원 · 진사 양과(兩科)에 합격하고, 임자년(1492)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 수찬(修撰), 정언(正言), 병조좌랑(兵曹佐郎), 호조정랑(戶曹正郎), 첨정(僉正), 시정(寺正), 참교(參校) 등을 역임하고, 연산 계해년(1503)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 대접하는데 주선을 잘하고 직책을 완수하여 포상(褒賞)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승임되었다. 이듬해 갑자년(1504)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겨우 돌아오자마자 사화(士禍)가 일어나 형님에 연좌되어 참형(斬刑)을 당하니 향년 41세였다. 公이 대간(臺諫)으로 있을 당시, 여러번 직언(直言)으로 연산의 생모 폐비윤씨 입묘(入廟)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까닭에, 연산이 노(怒)함을 품고 있다가, 公에게 화(禍)를 입힌 것이다. 公은 천성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부정한 사람이나 비의(非義)의 일은 일찍이 용납하지 않았다. 성균관에 있을 때, 한 진사(進士)가 임사홍(任士洪) 집에 자주 출입하는 자가 있어, 배신(陪臣)에서 내쳐버리고, 재실에 있는 진사가 시장 사람과 더불어 모리(謀利)하는 자가 있어, 재실에서 내 쫓아 엄숙하고 고요해서, 동료(同僚)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높은 벼슬에 이르러서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여 뜰 앞과 출입구가 적적하였으며, 부엌에 한 개의 물건이 생겨도, 반드시 출처를 물어, 사람들이 사적(私的)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 한때 부형(父兄)들이 고관으로 조정에 가득 찼을 때에도, 깊이 스스로 자기를 겸양하여, 자기감정을 누르고 겸손하여 자랑하는 기색이 없어, 사람들이 공손한 태도를 칭찬하였고, 또 정사를 잘하여 호남관서(湖南關西) 지방에 의옥사건(疑獄事件)이 있어, 여러 해 동안 미결이었던 것을, 公이 차관(差官)을 계속하여 샅샅이 조사하여 실정을 밝혀내니, 사람들이 公의 밝음에 탄복하였다. 중종반정(中宗反正)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묘(墓)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덕유산 영각사 경내이고 아들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삼가현감(三嘉縣監) 수진(守震)이고, 큰사위는 하동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세호(鄭世虎)인데, 그의 딸(女)이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부인이 되어, 14대 임금인 선조(宣祖)를 탄생하였다. 둘째 사위는 승문원 정자 윤극인(尹克仁)이다

4. 도승지공 세광(都承旨公 諱 世匡 ? ~ 1504)

자는 정경(正卿)이고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諱 克培)의 셋째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출사하여 성종 6년(1475) 오위사정(五衛司正)으로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언(正言)에 제수되었다. 이후 이조정랑, 지평(持平),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장령(掌令), 경상도경차관(慶尙道敬差官),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등을 역임하였다. 1488년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오르면서 직제학(直提學)에 승직하고, 다시 정3품 통정대부에 승진하면서 부제학(副提學)에 제수되었으며, 다시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다. 1489년 병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체직되었다가 도승지를 배수받았다

갑자년(1504) 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공은 굳세고 곧은 마음씨로 간관(諫官)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연산군 즉위 초 선정전(宣政殿) 강연(講筵)에서 역대의 치란(治亂)을 논하고, 극단적으로 이단(異端, 불교)의 폐해(弊害)를 극간하여, 연산의 노여움을 샀던 일과, 폐비 윤씨에게 승지로서 사약(賜藥)을 받들고 간 일로 인하여, 사사(賜死)된 광양군(廣陽君)의 종제(從弟)로서 연좌(緣坐)되어, 화(禍)가 몸에 미치게 되었다.

중종이 위(位)에 오르게 되니, 公의 죽음은 그 죄를 지은 탓이 아니라, 몸이 혼조(昏朝) 즉 연산조를 만나, 곧은 정신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그 이름있는 절개(節槪)가, 백세(百世)에 가히 공경할 바 라하며, 중종 1년(1506) 신원(伸寃 억울함을 풀어 버림)하고 이조참판을 증직 하였다. 묘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陽城面) 난실리(蘭室里) 불현(佛峴)에 있다. 아들에 별좌 수건(守謇)과 현령 수은(守誾)을 두었다.

5. 전한공 수공(典翰公 諱 守恭 1464 ~ 1504)

자는 중평(仲平)이고 호는 공재(恭齋)이니, 세조 갑신년(1464)에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諱 克培)의 손자(孫子)이며, 군수 세충(郡守 諱 世忠)의 둘째 아들로 탄생하였다. 일찍이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을 스승으로 섬겨 학문이 고명하고, 한원 김굉필, 일두 정여창과 도의의 교우였다. 성종 17년(1486) 진사에 오르고, 무신년(1488)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축서 사축(司畜署司畜), 전적(典籍), 정언(正言)이 되었다. 성종 19년(1490) 외방시 사전(外方寺社田)을 감축하여 향교(鄕校)에 급여하도록 하고, 1494년 형조정랑, 교리, 문학,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을 거쳤다. 연산군 3년(1497) 장령, 응교를 역임하고 전한(典翰)에 이르렀다. 1498년 무오사화를 만나 난언[亂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말함]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경도 종성(鐘城)에 유배되고, 이어 전라도 광양(光陽)에 이배(移配) 되었다가 신유년(1501) 풀려 나왔다. 갑자년(1504) 사화(士禍)를 만나, 폐비 윤씨(廢妃尹氏)의 묘(墓)를 이장(移葬)할 당시, 도감(都監)의 설치를 반대하였다는 죄로 참살(斬殺)되니, 향년 41세였다. 公은 침묵하고 도량이 크며 재물을 욕심내지 않았고, 노래와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또한 한가히 집에 있을 때에는 의관을 단정하게 바로 잡고, 무릎을 꿇고 정좌하여, 더위가 한고비에 다다른 여름에도,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 일찍이 시골 농장에 있을 때, 그곳 군수(郡守)가 밭(田)을 주면서 농사지으라고 했으나, 公은 받지 않고「남의 땅을 뺏어서 사사로 주는 것이 옳으냐?」하였으니, 청렴함이 이와 같았다. 중종반정으로 나라가 밝아지니, 설원(雪冤)되어 중종 3년(1508)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고, 무오당적(戊午黨籍)에 수록되었다. 公이 임종(臨終)할 때에 자손에게 훈계하기를 과거를 보지 말고 한양에 살지 말라고 하였다. 아들에 이진(以震)이다

6. 충청도사공 수원(忠淸都事公 諱 守元 1468 ~ 1504)

자는 선중(善仲)이고 호는 원재(元齋)이며 문경공(文景公 諱 克堪)의 손자(孫子)이고,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의 장자(長子)로 세조 무자년(戊子 1468)에 탄생하였다. 한원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닦으니, 형제 4인(兄弟四人)이 다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로서 이름이 났고, 훌륭한 가문의 음덕(蔭德)으로,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천거(薦擧)를 받았다. 세마(洗馬), 부솔(副率),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봉상시정(奉常寺正)을 거쳐, 충청도사(忠淸都事)에 이르렀으나, 연산 무오에 함경도 북청으로 장배(杖配)되고,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혹독한 화(禍)를 입어, 5월 13일 4형제가 처참효수(處斬梟首)되니, 향년 37세였다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설원(雪冤)되어,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선고 광양군 묘하(墓下)이고, 슬하(膝下)에 홍문관교리 탄수선생 연경(延慶), 생원 종경(宗慶), 승경(承慶), 군수 유경(有慶), 부사용 여경(餘慶)이다.

7. 사인공 수형 (舍人公 諱 守亨 1470 ~ 1504)

자는 가중(嘉仲)이고 호는 형재(亨齋)이며 문경공(文景公 諱 克堪)의 손자(孫子)이고,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의 둘째 아들로, 성종 경인년(1470) 탄생하였다. 한원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문하(門下)에 사사(師事)하여 문학이 당세에 우수하였다. 병오년(1486) 16세의 나이로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임자년(1492)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을 거쳐 전랑(銓郎)에 뽑혔고 집의, 수찬, 교리를 거쳐 사성(司成), 필선(弼善), 보덕(輔德), 장령(掌令), 전적(典籍)으로 벼슬이 의정부 검상(檢詳) · 사인(議政府舍人) · 지제교(知製敎)에 이르렀으나, 연산 무오(戊午)에 멀리 귀양 갔다가, 갑자년(1504) 5월 13일 4형제가 처참효수(處斬梟首)당하니, 향년 35세이며.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설원(雪冤)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영동 거문달동(永同 巨文達洞)이었으나, 병오년(丙午 1966)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율리 청용등으로 천묘(遷墓)하고, 전한(典翰) 양자해(梁自海)가 찬한 묘갈을 옮겨 세웠다. 계자(繼子)는 종경(宗慶)이다.

8. 검열공 수의 (檢閱公 諱 守義 1474 ~ 1504)

자는 존중(存仲)이고 호는 의재(義齋)이며 문경공(文景公 諱 克堪)의 손자(孫子)이고,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의 셋째 아들로 성종 갑오년(甲午 1474)에 탄생하였다. 연산 임자년(1492)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뽑혀 홍문정자(弘文正字), 문학(文學)을 거쳐 검열(檢閱)이 되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에 멀리 귀양 갔다가, 신유년(1401)에 석방되었으나, 갑자년(1504) 5월 13일 혹독한 화(禍)를 입어 4형제가 처참효수(處斬梟首)되니 향년 31세이다.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설원(雪冤)되고,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증직되었다. 안타깝게도 묘소는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으며, 슬하에 지경(枝慶)을 두었다.

9. 홍문관 부수찬공 (弘文館 副修撰公 諱 守貞 1477 ~ 1504)

公의 자는 간중(幹仲)이고 호는 정재(貞齋) 또는 소한재(素寒齋)이니, 성종 정유년(1477)년 5월 6일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의 넷째아들로 탄생하였다.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선생에게서 배워, 재기(才器)와 학술(學術)로, 사우(師友)간에 추앙하여 존경함을 받았으며,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선생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과는 젊은 벗으로서, 제일 가깝게 의리로 사귀었다. 연산 신유년(1501) 생원 · 진사시(生員 · 進士試)에 장원하고, 같은 해 23인 중 장원(壯元)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승정원 주서(承政院主書), 봉상시 주부(奉嘗寺主簿)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뽑혀 동학교수(東學敎授)와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 지제교(知製敎)를 겸(兼)하였다.

연산 무오년(1489) 사화(士禍)에 온 집안이 귀양 가는 화(禍)를 당하였으며, 갑자년(1504) 사화(士禍)에 종조부(從祖父) 좌의정공(左議政公 諱 克均)과 부친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 형제(兄弟)가 참형을 당하고, 5월 13일 公의 4형제가 다 함께 참형(斬刑)을 당하니, 향년 28세이다. 이때 公의 큰 아들 윤경(潤慶)은 7세이고, 둘째 아들 준경(浚慶)은 6세로, 충북 괴산 청안으로 귀양을 갔다.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설원(雪冤)되어, 도승지 겸 홍문관 부제학(都承旨兼弘文館副提學)에 증직(贈職)되었고, 명종조(明宗朝)에 이르러 둘째 아들 동고상공(東皐相公 諱 浚慶)의 현달(顯達)로, 영의정 겸 세자사((領議政兼世子師)의 증직(贈職)을 더 하였다. 묘는 양근 용진면 목율동 차항(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 78 – 2)이다.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상서원 판관(常瑞院判官) 승연(諱 承演)의 따님이며, 좌의정 자수(左議政自守)의 증손녀인데, 아름답고 뛰어난 덕(德)이 있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이르기를「과부의 자식은 남이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반드시 학문에 열 갑절을 더 부지런히 하여서, 너의 가문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하였다. 장자(長子)는 병조판서 숭덕재(崇德齋) 윤경(潤慶)이고, 차자는 동고상공(東皐相公) 준경(浚慶)이다.

제례의 의미와 참제원

1. 의례의 종류

의례는 크게 국가의례(國家儀禮)와 사가의례(私家儀禮)로 나뉜다. 국가의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모든 의례이고, 사가의례는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이 사가(私家)에서 행하는 관혼상제 등의 의례를 말한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3년 병인 12월 7일)
>
> 신헌구(申獻求. 고종대 예조판서, 궁내부 특진관)가 아뢰기를,
>
> "예서(禮書)가 매우 많은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는 《오례의(五禮儀)》를 사용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책의 권질이 간편하고 도식(圖式)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니, 上이 이르기를,
>
> "무엇을 오례(五禮)라 하고 사례(四禮)라 하는가?" 하니, 신헌구가 아뢰기를,
>
>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가 이른바 오례(五禮)이고,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가 이른바 사례(四禮)입니다." 하였다.
>
> (獻求曰, 禮書甚多, 而我朝則有五禮儀, 用於國, 四禮便覽, 用於家, 編帙簡要, 竝有圖式矣。上曰, 何謂五禮 · 四禮? 獻求對曰, 吉凶軍賓嘉, 謂之五禮, 冠婚喪祭, 卽所謂四禮也。)

1) 국가의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대한예전(大韓禮典)〉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주관하여 행하는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의례행사이다. 길례(吉禮 종묘 · 사직 제사), 가례(嘉禮 궁중혼례 · 연회), 빈례(賓禮 외국사신 접대), 군례(軍禮 군사의식), 흉례(凶禮 왕실장례)의 오례(五禮)를 말한다. 이 중에서 국가 제사는 종묘대제, 사직대제, 환구대제, 능제향, 문묘석전, 서원향사, 선농제, 선잠제, 기우제 등이 있다.

2) 사가의례는 〈주자가례〉와 〈사례편람〉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례(四禮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중심으로 일반 사가(대부 · 사 · 서인)에서 주관하여 행하는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의식행사이다. 이 중에서 사가제사[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여 구분하면 상례편의 상중제사(喪中祭祀)와 제례편의 제사(祭祀)로 구분]는 국가제사의 용어, 형식,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2. 사가제사(私家祭祀)의 구분

① 사시제(四時祭) :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祖上)에게 4계절의 중월(仲月 2. 5. 8. 11월)에 지내는 제사로서 모든 제사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② 시조제(始祖祭, 初祖祭) :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양(陽)의 기운이 시작되는 동지(冬至)에 지낸다고 하였다.

③ 선조제(先祖祭) : 2세부터 5대조(高祖의 父親)까지의 선조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만물이 생성하는 첫날인 입춘(立春)에 지낸다고 하였다

④ 녜제(禰祭) : 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계추(季秋 9월)에 지낸다고 되어 있다.

⑤ 기제(忌祭) :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에게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⑥ 절사(節祀) :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서 차례(茶禮)라고도 한다.

⑦ 묘제(墓祭, 時祭) : 선조의 묘(墓)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묘제는 세일사(歲一祀) 묘제와 4대친(親未盡) 묘제가 있다. 세일사 묘제는 기제(忌祭)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親盡)의 선조에게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이고, 4대친(親未盡) 묘제는 기제(忌祭)를 모시는 고조, 증조, 조, 부모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그러나 불천위(不遷位) 선조는 기제와 묘제 모두 지내기도 한다.

※ 최근 4대친 묘제는 잘 지내지 않으며 사시제, 녜제는 대부분 지내지 않고, 시조제, 선조제는 대종중에서 지내며, 기제, 절사(차례), 묘제(시제)는 각 가정과 문중에서 많이 지내고 있다.

3. 참제원(參祭員) 구성

참제원은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總稱)하는 말로써 집례, 축, 헌,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제례편의 기제, 절사(차례), 묘제(시제) 등 모든 제사의 참제원의 명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집례(執禮)는 제향(祭享) 등의 의식이 있을 때 임시로 선임(選任)하는 자리(관직)로 홀기(笏記)를 읽어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창홀(唱笏)이라고도 한다. 즉 사회자이다. 이때 사용하는 홀기(笏記)는 제례 등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 낭독하게 하는 의례문서로서 절차를 미리 의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례의식을 총괄하는 사람을 도집례(都執禮)라고도 한다.

2) 축(祝)은 일반적으로 축문을 작성하고 읽는 집사를 말하며, 제례나 상례 등 신(神)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儀禮)에서,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인 축문(祝文)을 읽어 제례의 의미를 알리는 의례절차를 독축(讀祝)이라고 한다. 독축은 축관을 별도로 세워서 읽는데, 그 이유는 제례를 주관하는 주인이 감격과 슬픈 심정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례자(參禮者)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의를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다. 제례에서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이라 하여 보통 술을 석 잔 올리는데, 초헌례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린 직후에 축문을 읽게 된다. 다만 명절에 지내는 차례(茶禮)등에는 '단헌무축單獻無祝'이라 하여 술을 한 잔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는 않는다. 독축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에서 그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밝히고 신에게 어떤 사실을 고하거나, 축원을 드리는 글을 읽는 행위로, 매우 엄숙하게 행해지는 의례 절차이다. 종묘나 문묘 제향 때에 초헌관(初獻官)이 술을 따르면 신위(神位) 옆에서 축문을 읽던 사람이나, 그런 일을 맡아보던 벼슬을 대축(大祝)이라 하였다.

3) 집사(執事)는 각종 의식에서 주관자(主管者)를 도와 의식을 진행시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려의 집사제를 계승 성립하여 1444년(세종 26)에 편찬된 「오례의주(五禮儀註)」를 토대로 1475년(성종 6)에 예제(禮制)를 집대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고, 이것이 큰 변동 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조에서는 집사를 집사관(執事官) 또는 행사 집사의 약칭으로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각종 제사 때의 초헌(初獻) · 아헌(亞獻) · 종헌(終獻) 등 제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관원들이 포함되었다. 종래에는 좌집사(左執事), 우집사(右執事)로 칭하였으나 근래에는 서집사(西執事), 동집사(東執事)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좌집사는 서집사, 우집사는 동집사로 칭하는 것인데 참제원 기준으로 좌집사, 우집사라고 하면 신위기준 좌측(동쪽), 우측(서쪽)과 혼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제원 기준으로 좌집사(서쪽), 우집사(동쪽)로 하는 문중도 있고, 신위기준으로 좌집사(동쪽), 우집사(서쪽)로 하는 문중도 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예절의 방위를 기준으로 서집사, 동집사로 칭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① 서집사(西執事)란 초헌, 아헌, 종헌이 술잔을 올릴 때 향안의 서쪽에서 도와주는 집사로서 규모가 큰 제사에는 서집사를 2명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좌집사(참제원 기준 좌측)라고도 한다.

② 동집사(東執事)란 초헌, 아헌, 종헌이 술잔을 올릴 때 향안의 동쪽에서 술을 따르고, 도와주는 집사로서, 규모가 큰 제사에는 동집사를 2명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우집사(참제원 기준 우측)라고도 한다.

4) 헌작(獻爵)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복을 구하려고 격식에 맞춰 술(酒)을 올리는 일을 말하는데, 제사는 술을 매개로 신(神)과 통하므로 술을 올리는 헌작이 핵심이 되었다. 〈의례儀禮〉에 "포해(脯醢)를 천신할 때 삼헌(三獻)을 한다."라는 기록에서 제사의 헌작(獻爵)은 삼헌이 기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제사에서는 날 것[성(腥)]과 삶은 것[심(燖)]과 익힌것[숙(熟)]의 세 가지를 세 번 올린다."라

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례(家禮)〉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사에서 헌작은 신과 소통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사에 사용하는 술을 '청작(淸酌)'이라고 하는데, 〈사의(士儀 조선조 말기 허전(許傳)이 선비의 예법에 관한 내용을 모아 엮은 책〉에서는 소주(燒酒)가 원나라에서 온 흉주(凶酒)이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가례집람(家禮輯覽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이 『가례』를 증보 · 해설한 책)〉에서는 여름에 맛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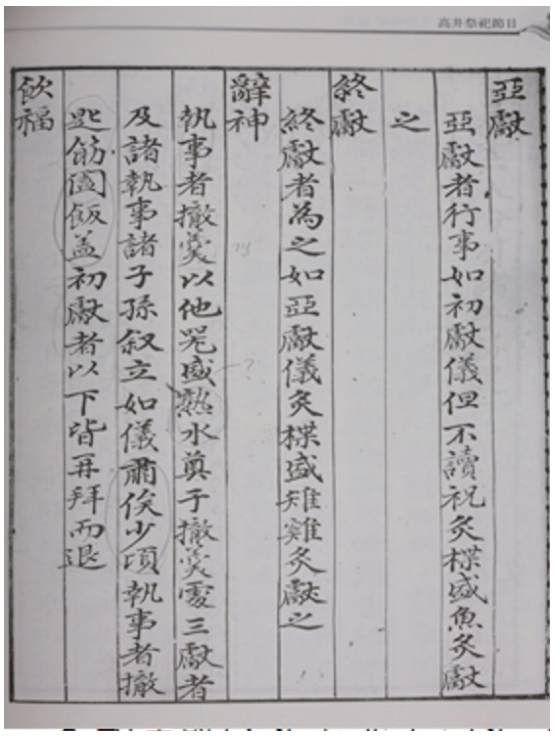
5) 헌작하는 사람을 '헌관(獻官) 또는 헌자(獻者)'라고 한다. 초헌(初獻)하는 초헌자(初獻者)는 반드시 적장자인 주인(主人)이 담당하고,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지내도록 하였기에, 아헌(亞獻)하는 아헌자(亞獻者)는 주부(主婦)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자(終獻者)는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담당한다. 헌작할 때는 진적(進爵)이라고 하여 헌작마다 간을 구워서 올린다. 헌작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가례(家禮)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집안에 따라 헌작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다. 〈주례(朱禮)〉와 〈가례(家禮)〉에 제사는 반드시 삼헌(三獻)을 하고, 고축(告祝)을 해서 주제자(主祭者)와, 제사를 받는 대상과 제사의 성격을 알리도록 하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문선(東文選)〉등에 실린 도교(道敎) 제사에서 삼헌을 할 때 올리는 글을 통해 삼헌의 의미를, 초헌에서는 '시기에 맞춰 제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고하고', 아헌에서는 '평소 보살핌에 감사하고', 종헌에서는 '앞으로의 복을 비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삼헌의 예는, 술을 한 잔만 마시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불단배(酒不單杯)라 했듯이,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술의 적량(適量)이 3배(杯)라고 생각된 데서 기인한다고 했다.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한다는 뜻에서 삼헌의 예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헌작방법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6) 헌관[獻官]은 나라에서 제례를 행할 때 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제관(祭官)으로 임시로 임명하였다. 제사(祭祀) 때에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初獻) · 아헌(亞獻) · 종헌(終獻) 등 3헌관(三獻官)이 있다. 〈국조오례의〉에는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직에서는 영의정이 아헌을 하고 종묘에서는 종친 가운데서 대군이 아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제례에서는 문무 당상관이 이를 맡아 하였는데 대체로 2품 이상이 임명되었으나, 2품 이상으로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3품관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제사에서는 헌관으로 관직(官職)에 있는 관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헌관(獻官),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등으로 칭한다. 그러나 사가제사(私家祭事) 등에는 관원이 아닌 후손 등 일반인이 헌작하기 때문에 '관(官)' 자를 붙이지 않는다. 선대 앞에 효를 중시하고 겸손해야 할 후손이 뽐내듯이 관(官)이라 칭하면서 헌(獻)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술잔을 올리는 사람"의 명칭으로 '관(官)' 자를 빼고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으로 칭하고 3명을 총칭하여 '헌자(獻者)'라고 하였다. 축자(祝者)와 집사자(執事者), 집례자(執禮者)도 마찬가지다.

① 초헌(初獻)은 삼헌(三獻)을 할 때 향(香)을 사르고 첫 번째 술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헌자(獻者)로서 제사의 주인이다. 기제사(忌祭祀)나 다례(茶禮)에는 봉사자손(奉祀子孫) 장자손(長子孫) 또는 [체천봉사손(遞遷奉祀孫)]이 초헌(初獻)을 한다. 그러나 5대조 이상의 세일사(歲一祀) 묘제(墓祭)에는 종손(宗孫), 직분을 맡을 문장(門長), 문중 종사(門中宗事)를 맡아 행하는 도유사(都有司) 중에서 여러 자손이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② 아헌(亞獻)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헌자(獻者)로서 기제(忌祭)의 아헌은 주부(主婦 주인의 부인)가 한다. 주부가 없거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인의 동생이 한다.

③ 종헌(終獻)은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헌자(獻者)로서 기제의 종헌은 주인의 동생이나 장남, 친족, 손님 중에서 한다. (아헌의 다음가는 근친자이다)


亞獻
亞獻者行事如初獻儀但不讀祝炙楪盛魚炙獻之
終獻
終獻者爲之如亞獻儀炙楪盛雉雞炙獻之
辭神
執事者撤奠以他器盛熟水奠于撤奠處三獻者及諸執事諸子孫叙立如儀肅俟少頃執事者撤匙筯國飯蓋初獻者以下皆再拜而退
飮福

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의 아들 신독재 김집이 저술한 것으로 광산김씨 종중(宗中)에 전해오는 고정제사절목(高井祭祀節目)이라는 책자에는 제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책에도 초헌 · 아헌 · 종헌을 헌작하는 자에게 관(官)이라 쓰지 않고 자(者)를 썼다. 조선 후기의 학자 · 정치가인 이재(李縡)가 편술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한 종합적인 참고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사가제사의 경우 헌관(獻官)이라 하지 않았다.

⑦ 기타 참제원에 대한 용어

- 당상집례(堂上執禮) : 홀기를 읽어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 당하집례(堂下執禮) : 밑에 서서 해설을 담당하는 제관.
- 전사관(典祀官) : 제사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차리는 일을 맡은 제관,
- 찬자(贊者) : 홀기를 읽는 사람
- 진설(陳設) : 제수를 제상에 차리는 사람(辨陳設)
- 알자(謁者) : 초헌관을 안내하는 집사.
- 찬인(贊引) : 아헌관과 대축을 안내하는 집사.
- 봉향(奉香) : 향합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서 분향을 돕는 집사.
- 봉로(奉爐) :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에서 분향을 돕는 집사.
- 사준(司樽) : 준소(樽所 술항아리를 놓아두는 곳)에서 술을 잔에 따르는 집사.
- 봉작(奉爵) : 준소에서 사준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또는 헌관 우측에서 잔을 받들고 시중드는 사람
- 전작(奠爵) : 헌관의 좌측에서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집사.
- 집사기(執事記)는 시제(時祭)를 차질없이 지내기 위하여 업무를 분담(分擔)하고 그 책임자(責任者)를 기록한 문서이다.

사가제사, 고유제, 산신제 등 많은 제례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례이든 의식에는 절차와 방식, 참례자의 명칭 등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행사를 치를 때마다 뜻과 의미를 되새기고 적정한 의례를 행할 때 경건한 의식이 행해진다고 할 것이다.

–대종회 문화유사 주 병 書–

제9회 둔촌백일장 공모전 시행

광주이씨 대종회와 강동구청이 후원하고 강동문화원이 주최하는 "제9회 둔촌백일장"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공모전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본 공모전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기성작가 제외)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강동문화원 홈페이지(www.gdcc.or.kr)나, 강동문화원 사무국(02 488-0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

제9회

둔촌백일장 공모전

이집(李集) [1327년~1387년] : 둔촌이라는 지명의 유래

이집의 초명은 원령이고 자는 호연이며 호는 둔촌이다. 그는 고려 말기의 학자·문신으로 본관은 경기도 광주이고 광주향리 이당의 아들이다. 이집은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굳고 천성이 강직하기로 이름이 났다. 그는 많은 인물들과 시로써 교류하였는데 특히 이색, 정몽주, 이숭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집은 강동구 "구암서원"에 제향되었으며 현재 "강동구 둔촌동"이라는 지명도 둔촌 이집이 이 지역에 은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둔촌동 뒤의 "굴바위"와 "둔굴"은 그가 은거했던 곳이라 한다.

1 공모 개요

가. 응모기간 : 2020년 8월 24일 (월) ~ 9월 25일 (금)
(※우편접수의 경우 9월 25일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나. 응모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우편접수 요망)
- **제출처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68 강동구민회관 2층 강동문화원

다. 글 제 : ①둔촌 이집 선생, ②무궁화(우리나라 꽃), ③마스크, ④여름장마 ⑤추석(한가위), ⑥거울(자화상)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

라. 응모분야 : 운문(시 · 시조), 산문
(※참가 1인당 운문 또는 산문 중 1개 선택, 중복제출 불가)

마. 응모규격 : 200자 원고지에 본인이 직접 자필(손글씨) 작성 제출
- **운 문 :**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 **산 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바. 참가자격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기성작가 제외)

사. 참가부문
- **초 등 부 :**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동등한 연령 어린이
- **청소년부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동등한 연령 청소년
- **일 반 부 :** 기성작가를 제외한 일반성인

아. 시 상 : 수상부문은 운문(시. 시조)과 산문 구분 없이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 심사

구 분	상 금(원)			비고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장 원(각 1명)	500,000	1,000,000	1,000,000	총 3명
차 상(각 2명)	300,000	600,000	600,000	총 6명
차 하(각 5명)	200,000	200,000	200,000	총15명
입 상(각10명)	100,000	100,000	100,000	총30명

작품 심사결과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금은 원천징수 후 개별 계좌로 입금

자. 수상자 발표 : 2020년 10월 15일 (목) 17시 강동문화원 홈페이지 공고

차.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응모 원고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는 강동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강동문화원 홈페이지 : www.gdcc.or.kr)
- 응모 원고는 200자 원고지에 참가자 본인이 자필(손글씨)로 작성 제출

카. 시 상 : 2020년 10월 예정 (※추후 상세일정 공지 예정)

타. 추후 수상작품을 모아 『제9회 둔촌백일장 수상작품집』 제작 후 배부 예정

2 유의 사항

가. 원고지 작성 유의사항
- 원고지 첫 장에는 학교명, 주소,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개인 인적사항은 참가신청서에 기재)
- 원고지 작성 요령
①첫째 줄에 제목 기재 / ②둘째 줄은 빈칸 / ③셋째 줄부터 원고 작성

나. 수상작품은 강동문화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응모작이 기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 또는 타 기관과 중복 응모가 확인되면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합니다.

라.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강동문화원 사무국 Tel. 02)488-0386 www.gdcc.or.kr

주최 서울특별시 강동문화원
후원 강 동 구
광주이씨대종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우수작품 소개(2)

고등부 최우수상 (도지사상)

“ 길 ”

양서고등학교 3학년
심 세 연

어김없이 하루가 또 지나간다.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은 가고,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어느샌가 내 눈앞에 와 있다. 꿈꾸던 열여덟째 해를 맞이하던 나는 요즈음, 학업에 이리저리 치이며 꽤나 힘들게 살아가는 중이다. 나를 죄여오는 압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진다. 그럴 때면 나는 걷는다. 논길을 따라, 집 앞의 작은 정자에서부터 저 멀리 꼬불꼬불한 길의 끝인 전봇대까지 무작정 걷는다. 매번 같은 길을 걷지만 자꾸 걷다보니 다른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

초록색의 풀 하나가 아닌 초록색의 넓은 풀밭이, 한 채의 집이 아닌 배경이 되어주는 커다란 뒷산이 보인다. 눈앞의 것들만 보다가 고개를 조금 치켜드니 더 큰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낸다. 잠든 것만 같았던 나의 감수성을 깨워온다.

그 신선함에 걷던 길에 멈춰서 머릿속을 비워본다. 이래저래 힘들일도 많을 터, 지금 아 니면 언제 또 그러려나 하는 생각에 나를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준다. 후우 하아.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니 근래의 근심들을 모두 게워낸 양 마음이 가볍다.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나의 휴식은 계속된다. 이곳에도 나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간이 있다. 이따금씩 친구와 팔짱끼고 세미원을 찾는다.

여러모로 지친 나에게 주는 잠깐의 여유랄까. 잠시 동안 성적 얘기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가정에서의 고민도 잊고 그저 물길을 따라 걷는다. 청둥오리 가족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짖어대는 강아지들도 지나친다. 허기가 질 때면 연잎 핫도그를 하나씩 사 들고 벤치에 앉는다.

그러고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그간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물을 사랑하고 물에게 늘 감사한다. 마시는 물이든, 씻는 물이든, 흐르는 물이든 상관없다. 투명하게 맑은 물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 물과 어울리고 싶어진다.

어쩜 저렇게 맑고 깊으며 조용한지. 이렇게 우리는 맘먹으면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자연을 끼고 살아간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자연에게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사회를 살아간다. 앞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자주 자연을 찾아다닐 생각이다.

이제, 자연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다시 일상을 맞이할 시간이다. 자연을 통해 나태함이 아닌 활기를 되찾을 때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기분이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리 집은 외딴 시골마을에 위치해 있다. 그날도 어김없이 푸른 논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붉은 잎을 가진 꽃이 피어있던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였다. 머리 위에서 먼지가 휘날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툭, 개미가 떨어졌다. 보아하니 그 나무에서 떨어진 듯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부는 바람에 못 이겨 떨어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나무를 향해 다시 오르는 개미를 소리 없이 바라보았다.

‘어?’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 개미의 머리에 흰털 하나가 삐죽 솟아 있었다. 세상에나, 개미도 흰머리가 난다고? 하기야 요 직전까지도 이 개미는 세상의 큰 풍파를 마주한 셈이니, 여간 힘들게 살아왔을 터였다. 선선하고 알맞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즐기지 못하고 힘에 겨워 떨어지고만 이 개미는 다시 나무를 오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응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동정을 했다.

우리 인간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질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궁지로 내몬다. 그렇게 나를 잃어가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자신조차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겨내고 또한 올라선다.

이 개미가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후자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머릿속에서 미소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미소 할아버지는 머리에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물드신, 항상 미소가 만개하신 할아버지이시다.

이 할아버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병원의 원장님이셨다고 했다. 병에 걸린 몸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더욱 복잡한 정신들을 상대하며 살아오신 것이었다. 며칠 전 들은 바로는,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기적인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셨고, 결국은 나아지시지 못해 병원 일까지 그만두신 것이란다. 그때에도 거의 매일 책을 읽으시며 마을 정자에 앉아계시곤 했다.

인사를 드릴 때마다 미소로 답해 주시는 인자한 분에게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순간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해 보이셨던 것일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할아버지에게 의아했던 점이 하나가 풀리게 되었다. 우리 집 택배를 맡겨달라고 부탁드릴 때, 병원에 가실 때, 심지어 농사를 하러 나가실 때에도 파란 수첩 하나를 꼭 손에 지니고 계셨었다.

아, 할아버지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는 걸 느꼈다. 그 수첩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삶에 놓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조차 이고선 끊임없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흰머리는 그간의 세월동안의 할아버지의 무수한 노력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말못할 속사정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소 할아버지의 기억이 이쯤에서 거둬들여졌다. 그리고는 다시 흰머리 개미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그러고는 하얗게 샌 개미의 흰머리를 보며 공감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것에. 그것이 사람이든 곤충이든 말이다. 이 개미는 그들의 세계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아왔다. (아니, 사실은 의지문제가 아닌 능력문제이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게다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 왔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입 덕분에 개미들은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낫다고 느껴졌다. 길가의 콩처럼 작은 개미에게조차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개미는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남겼었다.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 자신은 바람에 떨어지는 삶조차 다시 한번 나무에 오를 기회를 준 것이라 여겨 행복하다고. 너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 나처럼 일단 움직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았고 나 또한 개미에 지지 않게 머리가 하얗게 샐 때까지 열심히 움직여 보기로 했다. 나의 활기가, 라이터 불길의 온도만큼 뜨거운 열정과 함께 전자레인지 속 팝콘처럼 쉴새 없이 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동시에 내 인생도 개미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고전명구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은혜와 원한은 흔히 한마디 말 때문에 생기고, 화와 복은 한 글자로 야기 된다. 명철한 선비라면 마땅히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恩怨多由片言 禍福或起隻字 明哲之士 所宜惓惓乎銘念也
은원다유편언 화복혹기척자 명철지사 소의조조호명념야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문집 제12권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해설]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 요즘엔 뭔가요 내 가십 / 탐색하는 불빛 / 오늘은 몇 점인가요? / 쟤는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담? / 기분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은 뭐람? / 태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가? / 걱정이야 쟤도 참” 2018년에 온 국민이 아는 유명 가수가 직접 작사하고 부른 노래 가사 중 일부이다.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노래 가사보다 후렴구 멜로디가 좋아서 즐겨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 가수와 친하기로 소문난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온종일 매스컴을 뒤덮었다. 기사를 보고 다시 이 노래를 찾아 들었을 때 노래의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가사들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말들 때문에 더욱더 크게 상처받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 “은혜와 원한은 흔히 한마디 말 때문에 생기고, 화와 복은 한 글자로 야기 된다. 명철한 선비라면 마땅히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恩怨多由片言 禍福或起隻字 明哲之士 所宜惓惓乎銘念也)”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백 마디가 모두 믿음직해도 어쩌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귀신의 무리가 된다. (百言皆信一語偶譎 猶是鬼徒)“하였다. 정약용의 말처럼 진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고마운 기억이 될 수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괴로운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자도 仁이 무엇이냐는 사마우(司馬牛)의 물음에 “仁은 말을 참는 것이다.(仁者其言也認)”라고 하였다. 仁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공자는 단 한마디 말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것이다. 공자의 짧은 대답 속에 “말을 할 때는 혀를 칼 위에 놓고 하듯이 함부로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내포되지 않았을까?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느 작가의 말처럼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 2020년 8월 5일 (수) 2019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명구 부문 당선작

글쓴이 : 문윤미(범계중학교 교사)

둔촌(遁忖) 이집(李集) 선생

풍운이 몰아쳐도 굽히지 않는 청죽(靑竹)
포은과 목은 선생 나란히 걸었는데
고려의 마지막 하늘 먹구름 무성하다.

뽑아도 다시 솟는 잡초 우거진 세상
기름진 문전옥답 폐허되어 우는구나
비탈진 산자락에서 신음하는 대나무

벼슬을 마다하고 숨어서 사는 둔촌
쌓이는 적막감을 벗 삼아 노래하고
광대가 외줄 타듯이 이 고비를 넘긴다.

지은이 : 원 용 우

호: 여강(如江)
경기도 여주 출생.
시조시인. 문학박사
한국교원대 교수 역임
둔촌문학상 운영위원
한국시조학회 회장
광진문인협회 회장

-공 지-

둔촌이집문학상이 3년째 시행되고 있음에 즈음하여 우리 광이 종중의 문학도 여러분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미 기성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물론, 아직 등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예 창작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의 뜻을 모아, 가능하면 ‘광이문학회’(가칭)를 결성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①성명 ②출생년도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장르 ⑥활동 문학회 ⑦기타 참고사항 등의 정보를 9월말까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9000-4228 이주병(대종회 문화유사)
010-3745-7501 이기순(둔촌문학상 운영위원)

바르게 고칩니다.

〈제362호〉

■ 7면 하단 우측 상 14행 : 초혼합장(初魂合葬)
→ 초혼합장(招魂合葬)
중앙 하 9행 : 한(恨을) → 한(恨)을

■ 11면 상단 좌측 상 7행 : 龍門援鶴 → 龍門猿鶴
우측 하 1행 : (양평) → (楊平)

보학용어 해설[37]

■ 정려(旌閭)

정려(旌閭)란 정려각(旌閭閣)이라고도 하며 특별(特別)한 행실(行實)에 대하여 당사자(當事者)인 개인(個人)에게 내려주는 표창(表彰)인데 이는 정방형(正方形) 모임지붕으로 된 비각(碑閣)과 비슷한 건물(建物)로서 충신(忠臣)·효자(孝子)·열녀(烈女) 등을 표창하고 후세(後世)에 길이 귀감(龜鑑)이 되게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세웠다. 붉은 색으로 단장하여 편액에는 충·효·열과 직함(職銜)·성명 등을 새겼다. 조정에서는 매년 연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쌀과 의복 등을 주었다.

이 정려는 '정문(旌門)'. '정표(旌表)'라고도 부른다. 건물이 아닌 문을 세우게 되면 정려문이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정려각이 된다. 건립 기준이 효녀나 정절을 지킨 정절녀인 경우 열녀문·열녀각이 되고, 효자인 겨우 효자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정려문이나 정려각으로 칭한다. 정려각은 정려를 받은 주인공의 이름과 고향, 행한 일을 기록한 나무판, 즉 현판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한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정하고 유교의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효(孝)·충(忠) 등을 장려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본받게 하여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을 확실하게 통치하기 위해 충신이나 효자, 열녀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방의 수령들에게 명했으며, 수령과 향교의 유학자들, 혹은 해당되는 집안에서 신청을 하면 예조에서 심사하여 왕에게 올리고, 최종적으로 왕이 정려를 명하였다. 조선 시대 정려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고을의 경사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벼슬을 내리거나 세금과 군역을 면제하여 주니 이보다 큰 혜택은 없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둔촌선생 명시선 69

附次韻　惕若齋
부 차 운　척 약 재

東走西馳未肯休可憐王粲賦登樓迢迢江
동 주 서 치 미 긍 휴 가 련 왕 찬 부 등 루 초 초 강

水流人恨嫋嫋秋風動客愁
수 류 인 한 요 요 추 풍 동 객 수

醉中往往仰天呼驚動園林起宿烏幸有江
취 중 왕 왕 앙 천 호 경 동 원 림 기 숙 오 행 유 강

山客我輩相從漁叟與樵夫
산 객 아 배 상 종 어 수 여 초 부

척약재가 지은 차운을 적다

동서로 분주하되 쉬려고 아니하고,
가련한 왕찬(王粲)[1] 은 등루부(登樓賦) 지었네.
아득한 강물은 사람의 한을 흘려보냈건만,
솔솔부는 가을바람 나그네 시름 자아내네.

취중에 이따금씩 하늘 보고 부르짖으면,
원림(園林)이 경동하여 잠든 까마귀 일으키네.
행여라도 강과 산에 날 받아줄 친구 있다면,
어수(漁叟)건 초부(樵夫)건 함께 어울리리라.

1) 왕찬(王粲) :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인(177~217) 자는 중선(仲宣) 건안 칠자의 한 사람으로, 조조를 섬겼다. 작품에 〈칠애시(七哀詩)〉, 〈종군시(從軍詩)〉 등이 있다.

이달의 明心寶鑑

子曰	자왈
與善人居 如人芝蘭之室	여선인거 여인지란지실
久而不聞其香 即與之化矣	구이불문기향 즉여지화의
與不善人居 如入鮑魚之肆	여불선인거 여입포어지사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	구이불문기취 적여지화의
丹之所藏者赤 漆之所藏者黑	단지소장자적 칠지소장자흑
是以 君子必愼其所與處者焉	시이 군자필신기소여처자언

공자가 말씀하시길.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 향기와 더불어 화하게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 악취와 화하게 된다.
주사(朱砂)가 지닌 것은 붉고, 옻이 지닌 것은 검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 있을 사람을 삼간다.

–교우편(交友篇) 중에서–

– 알려드립니다!!! –

수그러들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모든 행사와 모임 등이 다시 축소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廣州이씨회보" 의 매월 발행은 원고 부족 등으로 제작에 상당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회보를 당분간 격월로 발행할 수도 있아오니 구독자 여러분과 종인들 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廣州이씨 대종회]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8월 구독 및 찬조			이봉춘	10,000	경기 남양주시	이용건	1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성수	10,000	경기 광주시	이선재	10,000	경기 성남시	이승재	10,000	인천시 미추홀구
이광연	10,000	경기 광주시	이왕래	30,000	충남 태안군	이염래	10,000	서울시 서초구
이규식	10,000	경기 광주시	이종성	20,000	경기 남양주시	이번래	10,000	경기 광명시
이규진	10,000	경기 광주시	이종구	10,000	경기 의정부시	이용덕	10,000	경기 수원시
이수일	10,000	경기 광주시	이기수	20,000	경기 의정부시	이용만	10,000	경기 광명시
이주복	10,000	경기 광주시	이근하	10,000	인천시 남동구	이도재	10,000	대전시 중구
이경희	10,000	경기 광주시	이근영	10,000	인천시 강화군	이용권	10,000	서울시 용산구
이을연	10,000	경기 광주시	이종옥	10,000	경기 평택시	이종순	10,000	대전시 중구
이장수	10,000	경기 광주시	이근익	10,000	경기 하남시	이덕재	10,000	충남 계룡시
이전희	10,000	경기 광주시	이석연	10,000	경기 용인시	이창재	10,000	대전시 대덕구
이정재	20,000	광주시 동구	이성순(호)	10,000	경기 가평군	이흥재	1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이동환	10,000	경기 용인시	이영교	10,000	경기 남양주시	이용호	10,000	충남 공주시
이광식	10,000	경기 이천시	이용복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종규	10,000	대전시 서구
이백섭	10,000	경기 하남시	이용필	10,000	대전시 서구	이공재	10,000	서울시 서초구
이남식	10,000	경기 남양주시	이용석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준재	10,000	대전시 중구
이영식	10,000	경기 남양주시	이화래	10,000	대전시 중구	이정재	10,000	대전시 중구
이은식	10,000	경기 부천시	이헌재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상훈	10,000	대전시 대덕구
이덕수	10,000	경기 이천시	이유재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원재	10,000	서울시 마포구
이현승	10,000	경기 이천시	이현재	10,000	서울시 양천구	이승언	10,000	서울시 강동구
이근태	10,000	서울시 구로구	이종업	10,000	대전시 중구	이종원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동현	10,000	부산시 동래구	이종국	10,000	충북 청원군	이종찬	10,000	대전시 유성구
이동준	1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이희재	10,000	서울시 광진구	이종기	10,000	대전시 중구
이경식	10,000	서울시 양천구	이권재	10,000	대전시 동구	이익수	10,000	경기 군포시
이근도	10,000	부산시 동래구	이흥재	10,000	대전시 중구	이용세	20,000	서울시 은평구
이재호	10,000	부산시 사하구	이승완	10,000	대전시 서구	이언공종회	20,000	인천시 서구
이재연	10,000	부산시 수영구	이용복	10,000	대전 유성구	화수회 2계	10,000	
이동귀	10,000	부산시 부산진구	이증재	10,000	대전시 유성구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 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0年 9月 1日
<제363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玉 載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昺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